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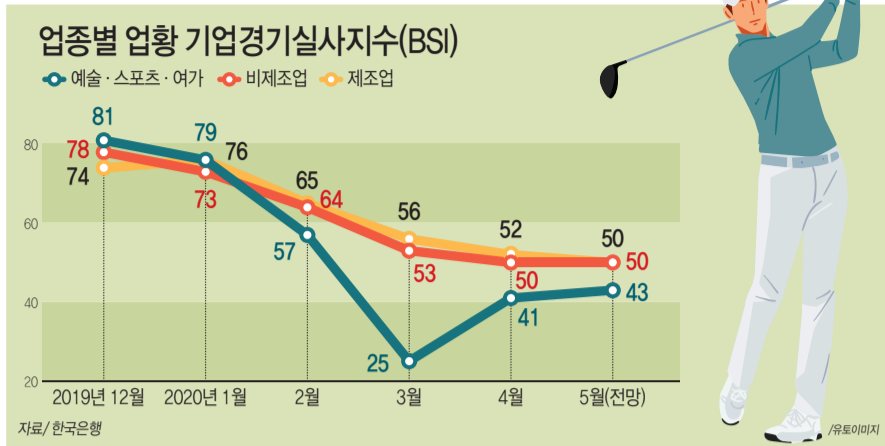
“코로나에도 잘 나가요” 예상 밖 호황 누리는 골프산업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활동 늘어
1분기 제주골프장 이용객 36만명
‘골프존’ 매출액 전년비 20%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업황이 바닥을 찍는 사이 골프 업계가 예상 밖 선전을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예술·스포츠·여가 부문 업황이 41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14개의 비제조업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체 비제조업의 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0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1월 이래 가장 낮았다.

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수치로 수치가 낮으면 업황을 부정적으로, 수치가 높으면 업황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에 대한 판단은 '나쁨' '보통' ' 좋음' 중에서 선택한다.

골프 업계가 뜻밖의 선전을 이루는 원인으로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와 경기의 특성이 주목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야외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방역 대응 체제 역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순으로 전환됐다.

또한 골프 경기는 소수의 인원이 비교적 먼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골프장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게다가 해외여행이 중단되며 동남아

등지로 원정 골프 여행을 즐기던 이용객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발걸음을 돌린 모양새다.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 제주도는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들이 줄을 이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골프장 이용객은 35만8550명에 달한다. ▲1월 10만2610명 ▲2월 11만3345명 ▲3월 14만2595명이다.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했지만 이용객은 꾸준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2018년 같은 기간(28만3390명)보다 늘었다.

인터넷 골프 예약서비스업체 엑스골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1월부터 4월까지 제주골프장 예약 건수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다. 전년 대비 지역 골프장 예약률은 강원도가 16%, 경기도가 41%, 충청도가 80% 상승했다. 반면 경상도는 30%, 전라도는

5%, 제주도는 25% 예약률이 하락했지만 전국 골프장 총 예약 건수는 오히려 높아졌다.

골프 관련주 역시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대장주는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다. 골프존은 올 1분기 매출액 727억원, 영업이익 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2%, 3.2%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 평균 추정치인 90억원을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남화산업'과 파주컨트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KMH' 역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골프웨어 업체는 핑, 파리게이츠, 팬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크리스토프앤씨'와 '까스텔바작' 등이다.

/신원선 기자·박미경 수습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전기차 핵심소재 '양극재' 양산체제 확대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 본격 가동
연 5000톤서 30000톤으로 확대
스마트팩토리 적용 자동이송시스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미래차 시대 준비를 위해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체제를 확대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포스코케미칼은 14일 전남 광양시에 건설 중인 양극재 광양공장의 2단계 연산 2만5000톤 규모 생산라인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명환 LG화학 사장 등 지역사회와 고객사 관계자를 비롯해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 포스코 신성장부장 오규석 부사장,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유성 RIST 원장, 손건재 포스코ICT 사장 등 포스코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준공으로 포스코케미칼은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광양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 5000톤에서 3만톤으로 크게 끌어올렸다.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운영 중인 연산 1만톤 규모 구미공장을 포함하면 연 4만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케미칼이 광양에 조성하고 있는 양극재 광양공장 부지 전경. /포스코케미칼

2018년 8월부터 광양 울촌산단에 축구장 20개 크기인 16만5203㎡ 면적으로 하이니켈 NCM 양극재 공장을 지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증설로 연 3만톤 생산 체제를 확보한 광양공장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산 9만톤 규모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60kWh급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약 75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광양공장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국내를 비롯해 유럽, 중국, 미국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에 공급된다. 광양공장은 포스코그룹의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적용해 원

료, 전구체, 반제품, 제품을 실시간으로 자동 이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화 창고와 제품설계, 공정관리, 출하 관리가 일원화된 통합관제 센터를 운영하는 등 높은 생산성과 안정적 품질관리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편 포스코케미칼은 2023년 연산 기준으로 천연흑연 음극재 10만5000톤, 인조흑연 음극재 1만6000톤, 양극재 9만톤까지 증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무협, 포스트 코로나 대비 채널 다양화

카카오톡 채널 '까통', 뉴스레터 등
통상지원센터, 무역환경 정보 공유

한국무역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채널 다양화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우리 무역업체가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까통' 구축, 이메일 통상 뉴스레터 발송,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통상 정보를 전달해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통상지원센터는 15일부터 카카오톡 채널 '까통(카카오 통상)'을 통해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통상이슈를 정리해 제공한다. 기업 통상담당자 외에도 통상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센터는 또한 지난 3월부터 통상 관련 뉴스 및 최신 보고서를 담은 '통상 뉴스레터'를 정부와 기업 담당자들에게 매일 발송해 오고 있다. 서비스 개시 직후 구독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업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새롭게 구축한 통상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무역협회 통상보고서, 해외 지역별 통상정보, 해외기관 보고서 및 주요 내외신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태블릿PC, 모바일 환경에도 최적화 돼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스페이셜, VR·AR 협업 플랫폼 무료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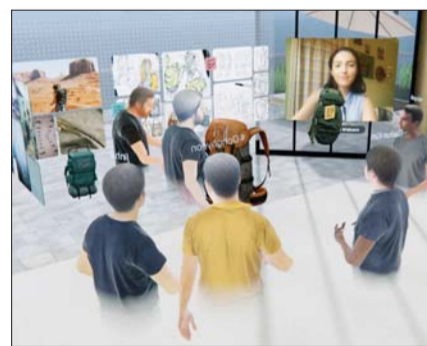
프로그램 설치없이 웹서 3차원 미팅

미국 가상·증강현실(VR·AR) 협업 플랫폼 개발기업 스페이셜이 코로나19로 협업의 어려움을 겪는 곳들을 위해 일반인 대상 무료버전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기능이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버전'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서비스를 무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페이셜은 모든 VR·AR 기기에서 작동하는 세계 최초의 혼합현실 협업 플랫폼으로, 이번에 유저경험이 대폭 향상된 가상현실(VR) 버전을 함께 선보여 VR헤드셋인 오클러스 퀘스트에서도 스페이셜 솔루션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매직리프, 울해 출시 예정인 엔리얼의 증강현실 글래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프리미엄 기능이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기존의 유료 고객들도 모든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이셜은 이번 공개 버전은 데스크



스페이셜의 증강현실(AR) 솔루션. /스페이셜

탑과 휴대폰만 가지고 있어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3차원으로 진행되는 미팅 화면을 보며 몰입감 있는 회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무료 공개는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와 재택근무에 지친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의 스페이셜의 사용 요청이 10배 이상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스페이셜을 사용하면 고객은 2D 스크린의 제약 없이 공간에서 문서와 3D 모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며 아이디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산업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 채용... 방역에 만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신규직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16일 필기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응시시간 거리두기를 위해 시험장소를 4곳으로 늘렸고, 약 2미터 이상 떨어져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 응시자 1216명 전원에게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로 구성된 '코로나19 안전키트'

를 제공한다.

시험 상황에 따른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사장별 감염관리책임자를 두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험생 발생 시 감염관리 전담자가 즉시 관리토록 했다.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 인근 의료기관 등과 핫라인도 갖췄다. 응시자는 반드시 개별 측정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고사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의 이번 필기시험은 서울과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안전키트' /안전보건공단

에서 실시되고,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올해 경력직 26명, 신입직 104명 등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hys@